

## 「해치지 않으면 보호 하지 않는다」

—자연보호론,  
그 문화적 접근의 토대—



이 재 근

〈본회 이사·전문위 홍보분과위원장〉

자연보호헌장이 엄숙하게 선언하듯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며 생존을 위한 절대권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권인 환경권을 명문화(明文化)하고 있다. 즉 우리의 자연은 청정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맑아야 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깨끗해야 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안전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권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도와 그 권리와 의무를 지킬 국민적 의식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은 이러한 환경권의 제도와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속의 온갖 것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요 지속적인 생활의 활력소이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보호받고 혜택받고자 함인 것이다.

보통 「자연보호」라고 하지만 이는 아주 쉽고 일상적인 말이기도 하다. 사실이 그러하다. 그렇게 쉽게, 글자 그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이 문제가 풀려나간다. 왜 그렇게 쉬운가. 『헤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자연을 훼손하고 손상시키며 해코지하는 원인행위가 없다면 구태여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다. 자연보호를 위한 일상행위의 하나인 쓰레기줍기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줍지 않는다』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보호론을 펼치기에 앞서 「자연보호 안하기 운동」부터 시작해야 할 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얘기하고 있지만 거슬러 오르면 이 자연보호의 원조(元祖)는 따로 있다. 2천3백여년전 孔子님 孟子님 이전에 老子와 莊子가 그들이다. 그 老莊사상은 이렇게 전해오고 있다. 첫째, 사람들에게 물질에 속박 당하지 말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인생관을 가지라고 했다. 속사(俗事)에 얽매이지 말고 잠시라도 산과 물 사이를 오가며 시원스럽게 살아가는 신성의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물 흐르듯이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른바 무위자연설(無爲自

然說)이 이와 다른 것이 아니다.

老莊사상의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자연관(自然觀)이다.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보다 깊고 넓게 보라는 것이다. 자연은 끝없이 넓고 사물마다 관점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물고기와 새와 사람과 사슴은 저마다 다른 위치와 입장에 처해있는 숨쉬는 생명체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간중심주의를 고집한다면 다른 생명체들을 해칠 수 있다.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즉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자연훼손행위이다.

인류가 부닥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인간들이 모든 사물과 모든 생명체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인식하며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연사랑이라든가 환경보호는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전면적으로 투시하고 접근하자는 老莊식의 순수한 자연관적 행위일 뿐이다. 그렇게 보면 자연환경보호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에 다름아니다.

다시말해 자연환경보호는 사랑의 운동이며 모든 사물에 대한 생명존중운동이다. 고전적인 자연예찬론자로 알려진 괴테도 『자연의 극치는 사랑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각종 공해,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지구자원의 고갈현상은 갈수록 심각하다. 여기에다 인간의 기계화에 따른 인성(人性)의 메마름과 핵전쟁의 위기상황은 또한 어떠한가. 老莊들은 이미 2천3백여년 전에 바로 이 위기를 경고했다. 특히 일찍이 『기계가 병』이라며 기계 사용의 폐단을 지적한 이가 바로 莊子였다. 그는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기심(機心)이 생길 수 있으며 기심이 생기게 되면 인간이 자기 본성을 잃고 물질에 의존하게 돼 인간 본성을 스스로 파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아주 옛날엔 나무나 풀같은 식물들도 말을 하고 들을 줄 알아서 인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인류문명이 발달할수록 교활하고 잔인해진 인간들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을 보고 놀란 식물들이 입을 꼭 다물었다는 황당한 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한 사람들이 있다.

식물도 인간처럼 영혼이 있으며 인간의 마음을 매우 정확하고 섬세하게 읽어내고 있다고 「증명」한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정신심리학자 피터 톰킨스와 크리스토퍼 포드이다. 그들이 함께 저술한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나와 있다. 난초와 관음죽, 벤자민 같은 꽃나무에 물을 줄 때 병들지 말고 예쁘게 자라라는 말을 속삭여 주면 정말로 거짓말처럼 너무나 싱싱하게 자란다. 예쁘다는 말을 들은 난초는 더욱 아름답게 뻗어나고 『너는 별로다. 볼품이 없구나』라는 말을 들은 장미는 실망한 나머지 자학 끝에 시들어 버린다. 오랜기간 정밀하게 실험해 본 결과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식물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이며 대화이다. 모든 식물이 그러하다.

「식물의 정신세계」에는 또 이런

대목도 있다. 떡갈나무는 나무꾼이 나타나면 사색이 되어 버린다. 제비꽃은 음악을 틀어주면, 그것도 바하나 모차르트를 들려주면 춤추듯 움직이며 쭉쭉 자란다. 장바구니 속에 들어간 싱싱한 채소는 이미 저 죽을 것을 알고 금방 축 늘어지고 시들어 버린다. 이들 저자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찮은 식물들을 놓고 그것들이 돌덩어리나 기계와 같이 무생물적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무지하고 몽매한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식물도 생명체이다. 따라서 식물의 죽음과 식물의 생존은 곧 인간의 죽음이고 인간의 생존이다. 자연 사랑과 환경보호가 바로 그것이다. 식물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물을 보호하고 땅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인간을 건강하게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자연의 죽음이 곧 인간의 죽음일진대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을 자연의 혜택속에서 살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라고 했다. 베푸는 것은 바로 겸손이고 존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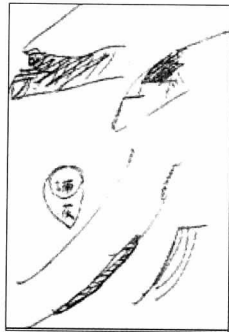
다. 감사하는 마음이며, 외경사상이다. 종교가 무엇인가. 사랑과 은혜, 감사와 베품, 자비와 평등, 자중자애와 겸허이다. 한마디로 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때 종교·인간이 삼위일체되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자연스럽고 자연다운 자연보호이고 환경보전이다. 그래서 자연보호운동은 가장 큰 인간보호운동이며 문화운동이기도 하다. 태초에 자연이 있고 로고스가 있었고 그리고 인간이 있고 종교가 있다. 문화란 바로 자연과 인간과 종교의 발전과정이다. 자연보호가 바로 인간성운동이며 문화운동이기도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문화속에는 도덕과 양심과 윤리가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보호와 환경문제는 오늘날 도덕과 양심의 차원으로 돌아가 법률적 행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도 안된다. 다시 한바퀴 도덕과 양심의 차원으로 돌아가 인류문화 전반의 과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문화는 또 교육과 같이 간다. 『자연, 해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

는다.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줍지 않는다』는 의미의 핵심도 바로 자연교육이나 환경교육 또는 인간심성교육의 내용에 자연스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사랑과 환경보전을 논의할 즈음 언제나 공해, 오염, 환경 파괴, 쓰레기 그리고 더 나아가 개발의 타당성과 필연성의 과제가 대두된다. 특히 『해치지 않으면 보호하지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순시중에 산  
림녹화를 지시한  
스케치.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역시 보전과 개발의 양면성과 모순성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아직도 이 지구상에서 문명의 개발없이 자연자원으로만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개발의 과제는 자

연보존이라는 단순논리만으로 도의시 될 수 없다.

문제는 개발의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 이후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한 절대적인 관심제로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함께 자연자원관리정책도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서 「보존을 전제로 한 개발과 이용」으로 전환되고 모든 생태자원보호 위주의 재정투자 등이 이뤄지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다.

여기서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에 대한 지난날 朴正熙 대통령의 관심과 기여도 오늘날 새삼 평가 지적될 수 있다. 박정희시대 이른바 군사문화의 전개라든가 반민주, 개발독재의 순환과정 속에서도 뒤늦게나마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철학적 토대가 진지하고 강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은 그 자신이 근대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을 마구 파헤친 과오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결과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전국토의 70% 이상이 산과 계곡인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산과

물과 흙은 분명 삶의 근원이요, 생활의 터전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선 흙과 물의 생명성과 생산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흙과 물을 등한시하고 산림을 훼손하며 환경을 파괴한데서 오는 인위적인 재앙의 대표적인 사례가 작금의 북한의 기아현상이다.

북한은 지난 30여년간 식량증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이른바 다락밭을 조성하고 연료채취를 위해 숲한 산림을 파괴했다. 이들 훼손지는 대개 급한 경사지에 초지 형태로 방치된 것이어서 큰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토사량이 녹화정리가 잘된 울창한 산림에서 보다 엄청나게 많기 마련이다.

북한 당국은 그들 식량난을 단순한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 식량위기를 가져온 수해가 바로 산림훼손지가 늘어감에 따라 집중호우 때 막대한 토사가 농경지로 흘러내려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인간이 부른 재앙인 것이다.

자연은 인간을 낳고 인간을 키우며 그 속에서 인간을 살찌우며 다

시 그 속으로 환원시킨다. 그리고 자연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자원과 지혜가 잠겨있다. 자연은 우리 모두의 모체(母體)이며 스승이다. 자연속에서 자연을 의지해 살아온 우리 선조들은 무엇보다 하늘과 물과 흙의 생명성과 생산성을 알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어울리고 사랑하며 공존하는 삶을 살아왔다.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오염하는 행위는 곧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터득해온 터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자연보호와 환경문제는 결국 인간의 의식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어떤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어떤 형태로 그 속에서 안주해야 하는가. 왜 자연은 엄격히 보호돼야 하고 환경은 온전하게 보존돼야 마땅한가. 한마디로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전이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현대사회 구조에서 인간의 영원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